광주에서 '삼성 디자인 혁명'

10월부터 첨단 정밀금형센터 본격 가동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경쟁력 극대화

삼성전자의 디자인 혁명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삼성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중대형 금형기반시설이 삼성광주전자에 구축돼 경남 구미(휴대폰 등 소형)와 함께 광주가 삼성전자의 금형 혁신을 이끌게 된다.

5일 삼성전자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0월 중순 광주첨단산단에 정밀금형개발센터를 건립,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센터는 광주시 북구 삼성광주전자 1만6529㎡ 부지에 세워진다. 건물 공사는 이미 마쳤고 현재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1400억원이 투자된 이 센터는 금형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차별화된 디자인의 생활가전과 TV, 컴퓨터, 프린터 등을 생산하고 신기술 개발, 생산성 혁신의 핵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회사내 금형 핵심 인력과 우수 기능인력을 선발해 지난달 19일부터 센터에 입주,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수원에 있던 삼성전자의 금형 기반이 광주로 이전해 온 것이다.

이 센터는 설계에서 설비, 금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기술 접목이 쉽고 개발기간의 단축,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10월 초까지 설비 점검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같은 달 중순께 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2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협력업체 10여곳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삼성 정밀금형개발센터 건립으로 매년 경제 유발 효과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삼성 생활가전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가전제품 금형에서 독보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영업이익 증대, 지역 수출 증대 등도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밀금형센터의 광주 건립은 수원에 있던 삼성전자의 금형 기반이 광주로 이전해 온 것으로 디자인 혁명과 원가 절감을 통한 제품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협력업체 이전과 금형산업 발전, 수출 증대 등 경제 유발 효과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삼성광주전자 내에 건립 중인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센터는 오는 10월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 합법인가 불법인가

행정적으론 '불법' 법원 판례는 '합법' 논란 속

사측 "복수노조 불인정" 노조 "교섭요구" 공방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회사 측은 "한 기업에 두개의 노조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산별노조 가입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불법노조 공방 속에 새로 출범한 노조가 사측에 6일 교섭을 요청해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은 행정적으로 해석하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관계법에서 복수노조 허용이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 입법 취지는 교섭 창구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으로는 엄연히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거로 지난 2006년 5월17일과 2007년 12월28일 노사관계법제팀의 행정해석을 제시했다. 법제팀은 '조직 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기업별 노조 설립 또는 초기업 단위 노조(산별노조)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잇따라 복수노조 허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불법노조 공방을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KBS 노조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새로 설립된 노조가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이 겹치더라도 그 조직형태가 산업별 노조일 경우 복수노조라고 볼 수 없다"며 "KBS는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는 당장(행정해석)은 '불법 노조'지만 법원에 호소하면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한편 금호고속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금호산업(주) 고속사업지부 광주분회' 하나였지만 지난달 30일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해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를 설립해 2개의 노조가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수출항 '컨' 물동량 급증

7월 목포신항 2만2000TEU … 작년비 445% 늘어

전남도 내 양대 수출항만인 광양항과 목포신항의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은 119만8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증가했다. 특히 광양항은 진 7월 한달간 17만8000TEU를 처리해 역대 7월 실적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목포신항의 물동량도 2만2000TEU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무려 445% 급신장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 국면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항로 다변화와 물동량 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항은 현재 주당 71항차 운항으로 지난해 67항차 보다 4항차 늘었다. 목포신항은 지난해 주당 1항차에 그쳤으나 올 해 들어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 항로에 주당 6항차를 운항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전문건설사 시공능력 '약진'

경기침체 불구 500억 이상 업체 4개사로 늘어

영창중공업 823억 1위, 동아에스텍 565억 2위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사들이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시공능력평가에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모두 4개사로, 지난해(2개사)보다 배가 늘었다. 300억원 이상도 지난해 10개 사에서 11개 사로 증가했다.

시평액 1위는 823억1136만원을 기록한 영창중공업(주). 철강재 설치 업종을 주력으로 플랜트, 조선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영창중공업은 지난해(637억8000만원)보다 29.2%(186억원) 성장, 부동의 1위를 지켰다.

2위는 도로안전시설물 제조업체인 동아에스텍(주)으로 지난해(369억원)보다 53.1%(196억원) 증가한 565억6000만원을 기록, 6위에서 4계단 뛰어올랐다.

이어 해동건설(주)은 지난해 442억2000만원보다 19% 증가한 526억2000만원을, 4위 도양기업(주)도 지난해 396억3000만 원보다 28.1%(111억4000만 원) 늘어난 507억759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5위는 광주업체로 다우건설이 차지했다. 다우건설은 지난해 329억원보다 48.93% 늘어난 490억809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전문건설사'톱 5' 모두 지난해보다 시평액이 크게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83.86 (-5.40)
▼ 코스닥지수	476.47 (-3.12)
▲ 금리 (국고채 3년)	3.87% (+0.03)
▼ 원·달러 환율	1,166.50원 (-1.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중소 건설현장 '안전불감'

광주지역 110건 행정조치

광주지역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두 달간 지역 32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들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1건, 사용중지 7건, 시정지시 102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추락·감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 78건(7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 교육 미흡 12건(11.8%), 신호 유도원 미배치 9건(8.8%), 안전보건 표지판 미부착 3건(2.9%) 등이었다.

한편 지난 상반기 광주지역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건)보다 24.1%나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기아 광주공장 '스포티지R'

유라시아 대륙 횡단 나선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야심작 '스포티지R'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5일 러시아 유력 자동차 전문지인 자를렘(Za Ruliom) 기자단과 자동차 블로거, 차량 운영 및 정비팀 등 13명이 스포티지R를 타고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

이들은 서울을 출발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 톈진, 베이징, 몽골 고비사막, 울란바토르, 러시아 옴스크, 튜멘, 카잔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모스크바까지 20박21일 동안 1만2000㎞ 거리를 달린다.

기아차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고비사막을 비롯해 몽골의 비포장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러시아 대륙 등 다양한 환경과 기후 속에서 20일여간 스포티지R의 성능과 내구성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여정은 자를렘 웹사이트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 실시간으로 소개되며, 현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된다. 기아차는 이번 행사에 스포티지R 3대를 지원하며 횡단을 마친 차량은 이달 말 모스크바 모터쇼에 전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